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하나님의 아픈 마음

(호세아 11:1 - 12)

원로목사 이종윤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는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듯한 슬픈마음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 갔습니다. 도망간 고멜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 호세아는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시고 찢어질대로 찢어지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됩니다. 본강의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복 받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1절).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이스라엘의 과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들을낳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2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야 할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것을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탄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탄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묶어 이끄셨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역사적 부르심과 실제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의 위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객관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이 이같이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빠르게 견도록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며 적자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2. 거역하는 현재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5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앗수르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가서 성공을 한 것 같고, 의미

를 찾은 줄 알았으나 바람을 먹음과 같이 공허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국 앗수르를 따라간 이스라엘 앞에는 거짓과 포학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에게 아부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닥쳐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3. 회복하는 미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8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가 열마간의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면서까지 댓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임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방황하지 말고 영적 고향인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방해물을 헤치고 새처럼, 비둘기처럼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집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와같은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사 26:3)



전교인 한마음 기도회

4월 1일 (토) 오후 5시 / 웨스트민스터홀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며 교회는 당면한 교회 문제를 놓고 「전교인 한마음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오는 4월 1일(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웨민홀에서 가지게 된다.

이날 말씀은 이종윤 원로목사가 담당하며 스테반 회와 제 1, 2 권사회가 시설과 제반 업무를 맡아 수고한다. 다락방, 교구별, 전도회별로 기도회에 많이 참여 할 수 있기 바란다

권사회 총회

오늘 3부 예배 후, 101호

샬롬, 제1, 2권사회(샬롬권사회장 : 박경희 권사, 제1권사회장 : 장호림 권사, 제2권사회장 : 김찬진 권사)는 연초에 열지 못했던 총회를 오늘 3부 예배 후 권사회 총회를 갖는다. 권사회는 오늘 총회를 가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점심식사를 섬긴다.

2017년 순결서약식

4월 16일(주) 찬양예배시간

신청 : 교육 부서별로

2017년 순결서약식이 4월 16일(부활절)주일 이후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4월 첫째 주(4월 2일)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예배' II

-예배, 하나님 영광 주권 위한 것-



이현웅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분께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분께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장로(개혁)교회 예배를 연구한 신학자 휴스 올리펀트 올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분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위치도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함으로써 참 인간일 수 있고, 온 피조물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오늘의 교회,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가장 자리로 밀려난 채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

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중심을 잃고 영적 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예배하는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웃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 29:1~2)"

우리는 장로교 신앙의 근본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잘 알고 있다. 요리문답의 제1 문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늘 드리는 바로 그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늘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로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각 교회나 교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형식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교파)의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예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계

교회의 일원이면서 한편 장로교회로서의 예배에 대한 정신과 고유한 원리를 갖고 있다.

먼저 장로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시오, 우리 인간은 그 분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마땅히 그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께만 예배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들이 만든 의식과 떠드는 소리만 넘치고 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기쁨을 위한 시간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장로교회는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예배일 때,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장로교 예배는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인 칼뱅은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예배 형식의 근간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두었다. 그래서 '말씀', '교제(봉헌)', '성찬', '기도'를 예배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장로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모든 예배의 정신과 원리를 제공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공보 제3058호
2016년9월10일(토)에서 발췌-
(다음주 계속)

천국시민양성 - 유년부 회장 선출

이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유년부 회장)

저는 유년부 회장 후보에 나가면서 '내가 회장이 돼서 유년부를 잘 이끌자'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고 회장으로 뽑아줄까?'하고 여러 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믿고 뽑아 주었습니다. 잘한 것도 별로 없고 어른들에게 칭찬도 못 받는 저를 믿어준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나를 믿어주어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그리고 회장이 되었으니 유년부를 잘 이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유년부 회장이 되기 위해 쓴 다짐문입니다.

- * 깨끗한 유년부를 만들겠습니다.
 - * 저희보다 부족한 친구들을 비웃지 않고 친구들이 서로 돕는 유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나라 여러 교회 중 우리 서울교회 유년부가 가장 빛나고 멋진 유년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 이 3가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



최임수집사
(비전2020본부 차장)

할렐루야! 먼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교회 후원으로 제3보병사단 23연대 신병교육대대 십자군 교회 세례예식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돌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18일(토) 오전 8시30분에 설래는 마음으로 교회에 집결하여 서명철 목사의 기도로 철원 3사단에 있는 삼성회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부목사님 4분과 장로 6분, 비전2020 임역원, 도고기도팀, 성례부를 포함 총 4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삼성회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십자군교회 군목과 멸공op로 이동하여 넓은 군사분계선과 적진지가 바라보이는 op상황실에서 근무병사의 현황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안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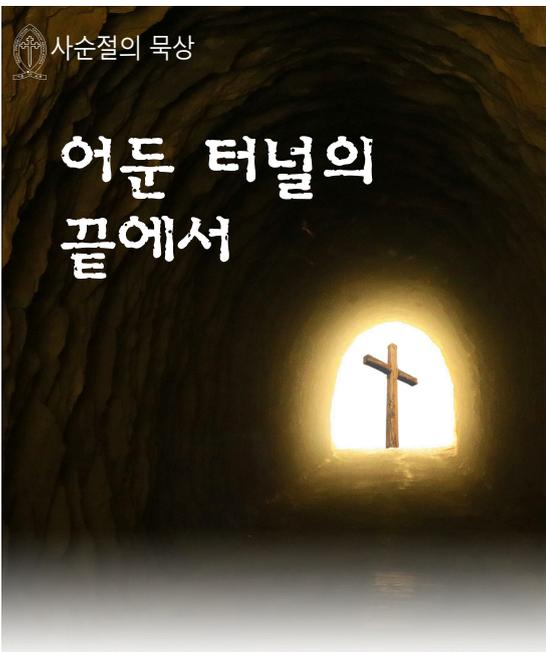
전방 견학을 마치고 십자군 교회에 도착하니 교회안에는 이미 병사들로 꽂차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참석인원은 세례인원 90명, 기타장병과 서울교회 인원을 포함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시작 전 준비찬양으로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힘차게 부르는 병사들을 볼 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어 최광성 장로님 기도과 임범창 집사님의 특별찬양 클라리넷 연주와 조원영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란 설교에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례예식과 장석남 목사님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세례자와 참석 장병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신앙팔찌, 핸드크림 등 준비해 가지고 간 간식과 함께 선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 이들에게 전·후방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기도할 때 비전2020운동은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말 그대로 군대는 전도하는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 비전2020운동은 더욱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목사님, 장로님, 성례부, 도고기도팀, 비전2020운동본부 임역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장병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옵소서!



정동호집사 (미국 버지니아주)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고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혜만을 위해 살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이 없을 것 같은 기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광야의 끝자락에서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터널과 광야도 끝이 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들에게도 못에 박히는 고통과 창에 찢리는 고통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아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서울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셨던 교회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교회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가, 이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전도 - 케냐 선교보고

서울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티리리카 초등학교



마사이 에세키 초등학교

4월 세례식 거행

4월 세례식이 4월 5일 저녁 7시 수요일에 시에 있을 예정이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는 3월 26일까지 문답 청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기 바람이며 세례식 거행을 위해 수요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 문의사항 임승한 집사(010-7743-3223)

-교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내 청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뒷정리와 식사 후 뒷정리, 물과 전기 절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 27일(월) 한국로잔위원회가 국제로잔의장 초청 조찬회에 참석한다. 3월 30일(목) 종교개혁500주년 Wittenberg국제학술대회 영상준비회의에 참석한다. 4월 1일(토) 사랑의 쌀운동, 몽골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서울교회 전교인 한마음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제 27회 기획연주회 「Shell we dance」 3월 30일(목) 오후 7: 30 당진문예의 전당 대공연장 - 교회에서 버스 출발 예정,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안성현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부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개업 : 13교구 이미경 성도 은마뱅크 공인중개사 tel : 557-9007, 010-6337-2832

■ 지난 주 식사 및 간식 찬조: 박혜정 허현숙 이봉선 이용자 허현숙 주경자 정미연 최종희 이정연 김혜중 안흥희 전화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제목>

1. 아마니 음악학교와 아마니 리더쉽 음악학교에 속해 있는 470여명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교육받고 훈련되어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2. 30명의 아마니 리더쉽 음악학교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음악적인 발전을 위하여
3. 90명의 아마니 장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장학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4.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졸업생들의 사역을 위하여(찬양 사역자로, 음악교사로)
5. 마사이 에세키학교 250명의 점심 급식지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6. 장·단기 선교사(피아노반주자)가 케냐로 헌신할 수 있도록
7. 김낙형, 오정녀선교사(아들 김경근)와 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최영락선교사 부부와 루마, 재능 자원봉사자 방해준 사모, 박은혜선생님의 협력과 건강을 위하여

이 모든 사역은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선교사의 섬김 그리고 저희와 동역하는 현지 교사의 헌신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도 아름다운 열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김낙형 / 오정녀 선교사 올림

사역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사이 어린이 250명 급식과 아마니 음악학교, 리더쉽학교 사역비, 교사, 스텝들의 생활비 등이 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케냐는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나이로비에서도 주말 이틀만 물이 제공되어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엄청난 흙먼지에 전기까지 자주 단전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 대선을 앞두고 부족간 갈등과 권총강도, 테러의 위협으로 주의 경계령과 학교도 조기 방학과 연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6곳에서 진행되는 220여명의 아마니 음악학교는 1월부터 저학년과 고학년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원하여 더 받아 들이고 비록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찬양하며 화음으로 한마음이 되도록 하고 있고 허기진 배를 빵과 우유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며 잘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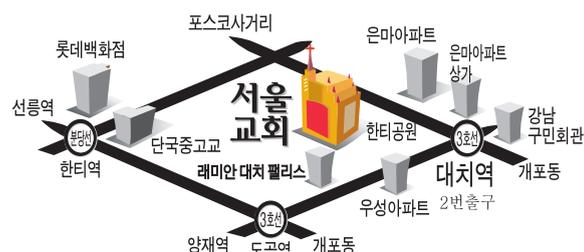
2. 특별히 음악적 소질이 있어 선발된 50명의 아마니 합창단은 전부 장학생으로 연주반과 연습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성가, 일반합창곡과 케냐 전통음악과 무용, 피아노교육, 한국무용(부채춤반)의 수업으로 아주 잘 훈련 되어 각 개인의 특성을 더욱 살려주고 복음을 바탕으로 합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합창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빈민 주자지역 티리리카초등학교와 마사이 에세키초등학교 책걸상 지원; 주자지역의 티리리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1,200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이 턱없이 부족하여 한 책걸상에 3명씩 끼여 앉아서 수업하고 교사들 책상이 부족하고 낡아서 교체해 주길 바라며 도움을 청했던 것을 미국 LA 원재단(WON FOUNDATION)을 통해 후원해 주셔서 티리리카 초등학교에는 고학년 책걸상 100개, 저학년 책걸상 66개, 교사 책상 23개를 마사이 에세키 초등학교에는 책걸상 40개와 교사 책걸상 16개를 지원 하였습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